

건축문화

a+u

신건축

Domus

Architec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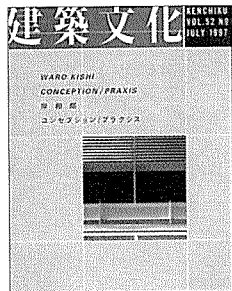
The Architectural Review

Architectural Record

## 건축문화

97년 7월호

이번 호에서는 일본의 건축가 키시와로(岸和郎)의 건축이 주제로 소개되었다. 프로젝트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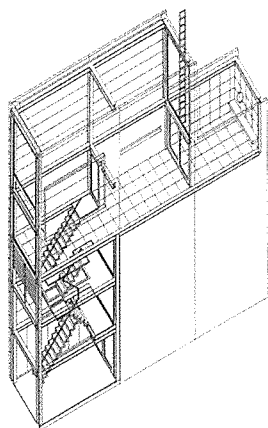
최근작, 과거의 작품으로 나뉘어 소개된 그의 작품은 각각 미래, 현재, 과거를 의미하며 이는 또다시 구상과 실천이라는 그가 생각하는 건축의 두가지 모순된 측면의 표현이기도 하다.

### ■ 키시와로의 건축세계

#### ▶ 키시와로

교토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건축가 키시와로가 세계적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그의 니혼바시의 주택(日本橋の家)이 일본건축가협회로부터 1996년에 상을 받았을 때이다. 그의 절제되고 원칙에

입각한듯한 건물의 분위기는 미니멀리즘과 초기 모더니스트의 건축, 그중에서도 미스 반 데로에의 건축을 연상시킨다. 그러나 그는 모더니스트 전통의 무비판적 수용을 거부하고 오히려 그것을 완전히 소화함으로써 모더니즘을 뛰어넘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니혼바시의 주택(키시와로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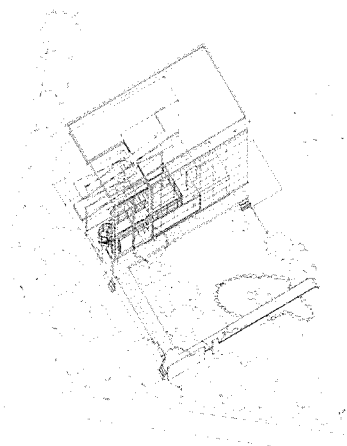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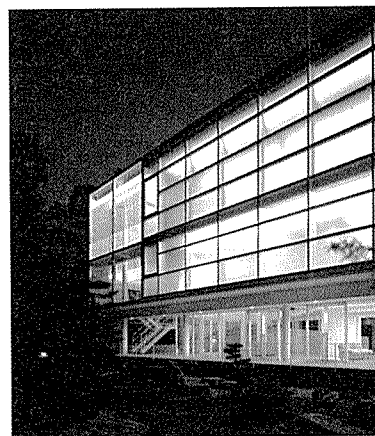
#### ▶ 構想/實踐 - 키시와로

키시와로는 건축의 계획안과 실현된 안들을 다음과 같이 특징지운다. 계획안은 꿈과 같은 것으로 이는 실현되기를 기다리는, 혹은 영원히 실현될 수 없는 것으로, 그 자체로는 완성된 안이 될 수 없는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항상 무엇인가 부족한 상태에 있는 것이 계획안이 갖는 의미로 보고 있는 것이다. 반면 실현된 안은 과잉의 상태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빌라 사보아의 초기의 계획안들은 교외의 빌라의 프로토 타입의 제시에 창조적 거의 모든 힘이 집중된 반면 완성된 작품에서는 흰 벽면의 의미라든가, 슬로프와 계단이 만들어내게된 공간의 중심성 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공간과 재료에 관한 이슈들이 포함되게 되는 것이다. 건축은 이 '결핍'과 '과잉'의 두 모순된 상태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 계획안과 최근작, 과거의 작품의 세가지 섹션으로 나뉘어진 그의 작품소개를 통해 그의 conception/ praxis 개념이 표현되기를 바라고 있다.

#### ▶ 최근작 - 야마구찌대학 의학부 창립50주년 기념관

20년전 동창회의 후원으로 조성된 일본

식 정원의 오른쪽에 이 기념관이 마련되었다. 전통 일본식 정원과 키시와로의 순수한 기하학적 건물은 강한 대조를 이루면서도 절제되고 다듬어진 일본 정원의 미감과 훌륭한 조화를 이룬다.



야마구찌대학 의학부 창립50주년 기념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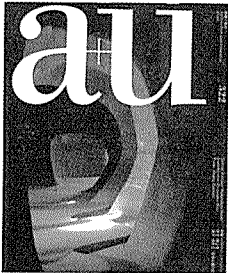
#### ▶ 과거의 작품 - 니혼바시의 주택

이것은 극소의 부지에 만들어진 주택이다. 폭 2.5m, 길이 13m의 건물로 1층에서 3층까지의 층고는 가능한 낮았으며, 대신 4층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식당의 층고를 6m로 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테라스, 즉 옥외공간으로 하였다. 이로 인해 이 건물은 부지의 길이방향뿐 아니라 수직방향으로도 확장하는 공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비록 식당과 테라스를 합하여 30제곱미터밖에 안되는 공간이지만 도시의 번잡함에서 격리된 부유하는 생활 공간을 가지며 이것이 또한 자연과 닿아 있다는 것이 이 주택의 장점인 것이다. 이는 근대건축들이 발명해낸 옥상정원이라는 유산을 버리지 않고 오늘날의 모습에 맞게 적용한 것이라 하겠다.

a+u

97년 7월호

이번호에서  
는 특집으로  
인도의 건축  
가 Balkris-  
hna Doshi  
가 소개되었  
다. 그는 르  
꼬르뷔제와



칸의 인도 프로젝트에서 협력건축가로  
활동하면서 인도의 대표적 건축가로 자  
리잡았다. 그의 대표작들과 그와 나눈 르  
꼬르뷔제와 칸에 관한 인터뷰가 실렸다.  
그외에 '빅토리아城신화 - 홍콩중경의  
기원과 변천' 과 연재기사 30년대의 영국  
근대 주택 제1편이 게재되었다.

■ 특집 - Balkrishna Doshi



Balkrishna Doshi

1927년 인  
도 푸네생.  
1951년에  
서 57년까  
지 르 꼬르  
뷔제의 상디  
갈이나 아메  
다바드의 프  
로젝트에 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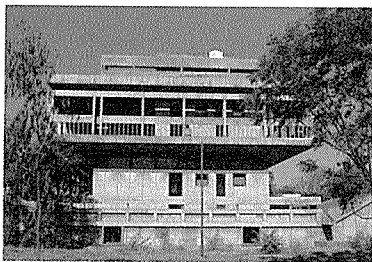
사하며, 시니어 디자이너로서 파리나 아  
메다바드의 아틀리에에서 르 꼬르뷔제와  
함께 일함. 그 후 그는 아메다바드에서  
그의 자콰 벵켈저택을 실현시킨 이후 주  
택, 오피스, 교육시설 등 다양한 작품을  
남기고 있다. Doshi는 건축가로서 뿐만  
아니라 교육자, 설립자로서 인도사회에  
공헌하고 있다. 최근 1995년에는 아가  
칸(Aga Kahn)상을 수상했다.  
그는 르 꼬르뷔제와 루이스 칸과의 협동  
작업에서 느낀 두 거장에 대한 그의 생각  
을 묻는 각각의 인터뷰에서 르 꼬르뷔제  
를 'The Acrobat of Architecture'로  
루이스 칸을 'The Yogi of Archite-  
cture'로 표현하였다.

▶후미히코 마키에 의한 Introduction

Doshi는 르 꼬르뷔제와 함께 일하면서  
그에 대한 존경을 항상 표해왔다. 그러나  
꼬르뷔제로부터 배우려한 것은 그의 건  
축의 형태가 아닌 그가 지닌 정신이었다.  
초기에는 Doshi 자신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꼬르뷔제의 영향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  
가고 있다. 도시는 인간이 무한히 우주로  
의 확장을 할 수 있게됨으로써 기존에 갖  
고 있던 또하나의 정신적 우주-마이크로  
코스모스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적하고 있다. 그는 물질 내면에 있는  
존재적 가치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Doshi의 최근 10년간의 작품에는 조용  
하면서도 엄숙하게 인도라는 지역과 공  
간문화에 걸친 근원적인 문제들을 제기  
하고 있다. 또한 그의 작품에서는 아시아  
의 정신이 스며있는 것이다.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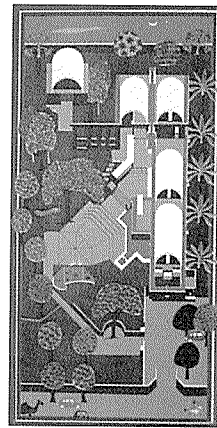
L.D. Institute of Indology(1957-  
1962)



1950년대 중반 자이나교의 수도승으로  
부터 고대사본등의 컬렉션을 기증받음으  
로 인해 시작된 미술관의 계획은 교육·  
연구시설이 포함되어 결국 인도학 연구  
소의 설립으로 이어졌다. 인도에서 전통  
적으로 고문서는 사원의 지하에 보관되  
어졌다. Doshi는 새로운 건물에서 고문  
서를 반지하층에 보관하기로 하고 주위  
에 연못을 만들어 이에 반사하는 빛을 이  
용하는 간접채광의 방식을 이용하기로  
하였다. 공조설비의 사용은 적합하지 않  
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건물은 지상에서  
반 층 높이로 솟아서 만들어지게 되었  
다.  
도시는 아메다바드의 오래된 자이나교의  
사원 아파슈라야를 염두해 두었고 여기

에 꼬르뷔제의 아메다바드에서의 프로젝  
트인 빌라 쇼단에서 쓰인 콘크리트의 파  
라솔이 함께 어우러진 형태가 나타나게  
된다. 그밖에 구지라트 전통건축의 요소  
인 깊은 차양, 테라스, 열주와 같은 요소  
를 도입하여 인도의 기후에 적합한 형태  
를 만들어 내었다.

▶Sangath, Architect's Studio  
(1979-1981)



스케치

상가스(인도  
어로 공동의  
목적을 위해  
함께 나아가  
다는 뜻)는 건  
축 혹은 계획  
에 관련된 미  
술, 기술예술  
분야의 활동  
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  
로 설립되었

다. 따라서 건축설계사무소외에 각종 강  
좌나 세미나의 공간이 불가결하였다. 작  
가는 상가스의 다이내믹한 취지에 맞는  
다이내믹한 건물구조를 이룩하며 전통적  
공간에 새로운 차원을 부가하여 그 대조  
에 의해 야기되는 체험을 만들어낼 수 있  
는 장소로 의도하였다.

신건축

97년 7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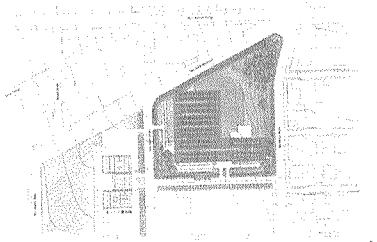
이번호에서  
는 계획안으  
로 안도 타  
다오의 '포  
트워스 현대  
미술관'이  
소개되었으  
며 작품으로



는 흥미하고 마키의 '바람언덕의 화장장' 과 세지마 카즈요의 '쿠마노고도(熊野古道) 나카헤찌 미술관' 등의 작품이 소개되었다.

■ 계획안

▶Morden Art Museum of Fort Worth(안도 타다오 설계)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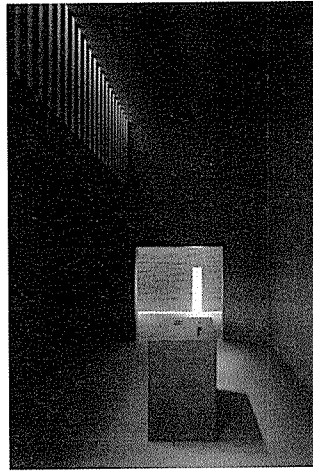
미국 텍사스주의 포트워스시에 이전·신축하는 현대미술관에 안도 타다오의 안이 최우수안으로 선정되었다. 사이트는 루이스 칸의 킴벨 미술관과 길 하나를 사이에 둔 위치이며 킴벨미술관의 질서를 기조로 하는 건물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대한 사이트 전체를 미술관으로 생각하여 미술을 침착하게 감상할 수 있는 장으로서 '예술의 숲' 이라고 이름지었다. 콘크리트를 유리로 감싼 이중구조의 직방체 6열이 평행으로 배치되고, 교통량이 많은 도로의 교차점쪽으로 숲을 조성하며 그 사이에 못을 두어 물과 녹지로 둘러싸여진 구성을 하고 있다. 이는 바로 옆 킴벨 미술관의 구성을 충분히 염두해 둔 것으로 보인다. 6열의 직방체는 긴 2열의 공동공간과 짧은 4열의 전시공간으로 이루어진다.

■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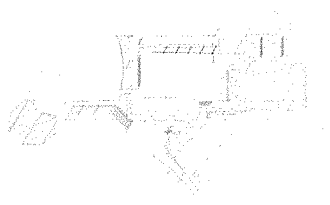
▶바람언덕의 화장장(후미히고 마키 설계)

동물들에게 자신의 영역을 확보하는 본능적 특성이 있듯이 사람들도 태고의 시대, 같은 공간감을 당연 공유하였다. '죽음'에 대한 의식도 역사속에서 다양한 모양으로 공간화되어 동시에 그것은 종교관과 깊은 관계를 맺고있었다.

현대의 도시화된 사회에 있어서 우리들 인간의 죽음은 화장장이라는 '시설'에 의해 '처리' 되고 있다. 병원, 커뮤니티센터



告别室 내부



등에서처럼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화장장의 프로그램이상의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프로그램에 대응한 제공간의 구분론으로서 그들을 초월하는 화장장에 맞는 공간원리가 발견되어야 하는 것이다. 작가는 '엄숙성' 과 '정숙함' 의 감정을 포괄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 존재하는 공간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떠나는자와 남는자와의 이별의 의식이 행해지는 장소로서의 화장장을 만들기 위해 화장장에서 공간의 흐름과 의미를 구체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다. 내부는 조잡한 장식을 제거하고 자연광과 벽의 텍스처를 통해 앞서 작가가 의도한 분위기를 만들어 내고 있다.

■ 연재

▶TOKIO 계획 1997 - project-07

知的 산업특구(Info - Industrial City): 창조를 위한 혼돈과 생산을 위한 합리가 병치된 산업특구구상이다. 20세기의 산업은 더욱 창조적으로 변질하여 21세기에는 완전히 새로운 지적 산업도시의 풍경이 동경에 출현한다.

Domus

97년 4월호

4월호는 시대와 분야를 초월하여 존재해온 역사성과 근대성의 대립 관계를 중심으로 창조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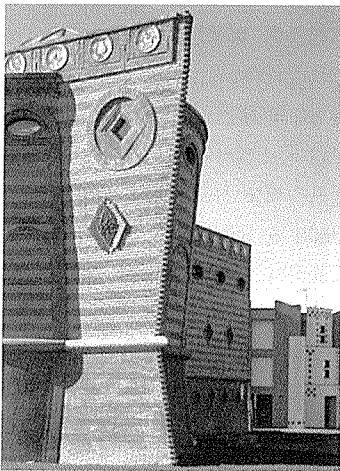
감상 행위에 있어서 역사와 기억의 의미를 탐구해보고 그것이 건축의 요소로 구체화된 작품들을 살펴보았다.

■ 근대성과 역사성

17세기의 신구논쟁에서부터 역사성과 근대성의 분쟁은 계속되었고, 근대운동, 특히 미술과 건축계의 근대운동들은 과거 역사로부터의 일관되고 체계적인 단절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당시 과학분야에서 아인슈타인에 의해 단선적인 시간 개념이 파괴되면서, 과거에 대한 현재의 우월성이라는 근대운동의 지지 기반은 흔들리게 되었다. 과거는 현재의 뒤뿐만 아니라 앞에 존재함으로써,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맺고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포스트모던은 Boullée와 Ledoux의 신고전주의 시대에 이미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고, 30년대 이탈리아 건축의 신고전주의, 이후의 포스트모더니즘은 이러한 성향의 반복이다. 포스트모더니즘에 이르러 공식적인 명칭과 평가를 받지는 했으나, 고정된 개념 내에 갇히게 됨으로써 과거와 현재의 대립 또는 역사주의와 같은 단정에 쉽게 노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마치 아르누보 운동이 그러했던 것처럼, 기술과 그 발전 과정의 자기현시에 집중함으로써 대립된 개념 사이의 종합을 추구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Deleuze와 Guattari가 말한 'plateau', 즉 과거나 미래에 의존하지 않는, 자족적으로 균형을 이룬 상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 작품

건축과 이상을 관계맺고 판단하는 문화적 전통에는 언제나 기억, 역사의 문제가 개입한다. 모든 건축행위는 환경과 함께 역사를 재조정하는 것이다. 한 개인에게 있어서 '거주' 한다는 것은 과거에 대한 명확한 기억 단편들의 습득을 필요로 한다. ▶티치노 지방 마을의 지역적 전통을 살린 재료를 사용한 Raffaele Cavadini의 이라나 행정본부, ▶독일 함부르크 상업지역의 개발 초기방식에서 영감을 얻어 건축요소들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하고자 한 Carsten Roth의 공장계획, ▶토렐로 지방의 엄격한 디자인 모티프 제한에 새로운 개구부 계획을 적용시킨 Jos Luis Mateo의 공동주거, ▶고전 미술관에 근대적인 형태의 확장부를 조화시킨 Henning Larsen의 덴마크 코펜하겐 칼스버그 글립토택 증축안, ▶건축에 대한 장인의 응용미술적 접근이 아직도 느껴지는 Marco Dezzi Bardeschi의 몬테루포 헬스센터 및 노인주거 등은, 과거의 다양한 요소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그것을 현대의 맥락에서 재해석하고 있는 예들이다.



몬테루포 헬스센터 및 노인주거(Marco Dezzi Bardeschi작)

■ 디자인의 전시에 대하여

디자인 제품 자체의 평가를 떠나 그것이 미술관 등에 전시되는 방법은 수준이 매우 낮은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런던, 파리, 밀라노의 세 전문가가 디자인의 전시 체계와 방법에 대한 의견과, 전세계의 디자인 미술관에 대한 목록이 게재되어 있다.

■ 이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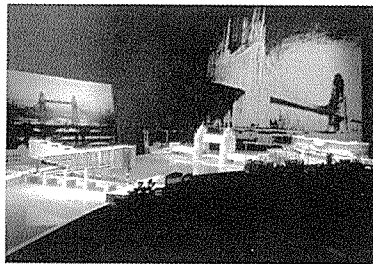
▶1937년 국제예술·기술박람회의 60주년을 맞아 30년대 유럽의 건축을 재고해본 파리 '30년대-건축 및 공간예술: 산업과 항수 사이에서' 전시회, ▶이탈리아 근대건축의 근원을 살펴볼 수 있는 Luigi Figini, Gino Pollini(1927-1991) 건축전을 평가하였다.

■ 신예 예술가

▶카드보드를 접착제 없이 다양한 기하학적 형태로 접어 가구를 만든 밀라노 디자이너 Marco Giunta,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대상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의 인간애를 탐구하는 불가리아 예술가 Kalin Serapionov, ▶건축, 디자인, 커뮤니케이션, 예술, 테크놀로지의 영역을 규합하여 역사의 의미를 복원하는 동시에 그것의 기술적, 문화적 영향을 모색하는 F.A.B.R.I. CATORS group의 작품들이 소개되어 있다.

■ 기타

▶대중문화와 미술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건축, 가구, 인테리어, 일용품 등 다양한 영역의 디자인 활동을 하고 있는 Nigel Coates의 작품세계 ▶Norman Foster의 '건축적'인 의자 디자인, ▶이탈리아 포르토 지방의 근대건축 소개와 위치도, ▶새로운 가구제품들에 대한 소개, ▶신간소개, ▶가상박물관 등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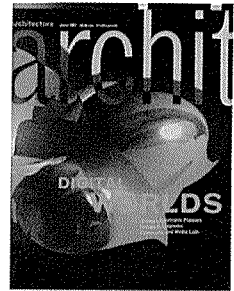


Nigel Coates의 「Mostra Living Bridges」 전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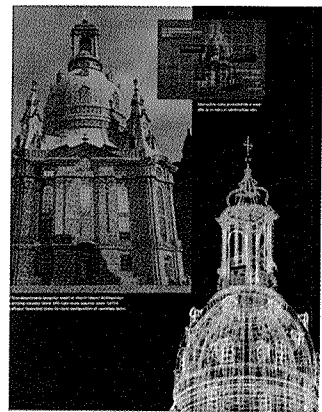
Architecture

97년 5월호

5월호는 컴퓨터 기술이 건축계에 미친 영향과 의미, 그리고 그 사용의 각종 유형들을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 디지털 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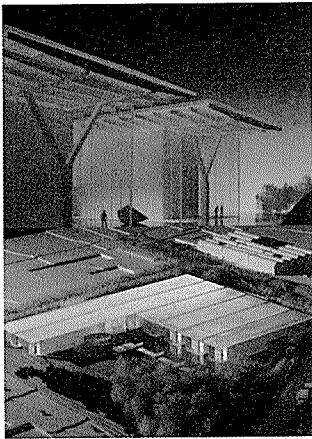


CATIA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복원한 18세기 바로크 교회

컴퓨터 기술은 이제 건축가의 표현방식 뿐만 아니라 설계절차, 나아가 설계에 대한 접근과 건축의 개념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다. 인간과 환경을 중재하는 건축의 물질보다는 인간의 신경조직과 연결되는 전기기구의 비중이 커져가는 것은 건축 자체에 대한 위협으로도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컴퓨터가 제시하는 무한한 가능성은 염세주의 속에서 건축이 이상과 꿈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게 해주는 동시에, 그것의 현실화 또한 촉진시켜 주고 있다. 건축계의 컴퓨터 사용과 관련하여 ▶컴퓨터 연구실과 사이버 카페 설계의 모범적인 사례, ▶Meyer Scherer & Rockcastle의 독창적인 '정보 목장' 설계, ▶각종 디지털 미술관, 시뮬레이션, 연극 세트에 적용된 건축가의 가상공간

설계, ▶건축가들이 추천하는 각종 디지털 제품들, ▶Autodesk사의 소프트웨어 개발 계획과 최고 경영책임자 Carol Bartz와의 인터뷰, ▶CAD 사용과 생산성 향상 여부에 대한 분석, ▶CATIA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18세기 바로크 교회의 복원, ▶컴퓨터 워크스테이션 관련 제품 등이 소개되어 있다.

■ 포트 워스 현대미술관 설계경기 결과



당선작으로 선정된 안도타다오案

스위스의 Herzog & de Meuron, 일본의 Yoshio Taniguchi, 스위스 태생의 Bernard Tschumi가 최종 경쟁안으로 선정되었던 뉴욕 MoMA 증축계획 이후, Louis Kahn의 킴벌 미술관 건너편에 건설될 포트 워스 현대미술관의 설계경기에서는 일본의 Tadao Ando가 제시한 계획안이 당선되었다. 연못을 도입하여 하늘과 조화시킨 가운데 투명한 벽면을 따라 진행되는 동선을 가진 2층의 L자형 평면을 지닌 작품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들은 미국 현지의 우수한 건축가들을 간과했을 뿐만 아니라, 고전적인 근대 스타일의 건축가들을 택함으로써 근래 미국 건축이 보여준 개성적인 형태 실험 역시 폐기시켜 버리고 말았다. 이는 미국의 문화적 열등감이 낳은 결과로 볼 수도 있는데, 미국 건축가들이 해외에서 많은 미술관 계획을 수행한 사실을 생각해보면 매우 역설적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러한 사실은 또한 더 이상 건축이 문화에 직접적으로 종속되지 않으며, 외부인에 의해 맥락, 역사, 정체성이 새로이 해석될 수 있다는 장점을 제시하기도 한다.

■ 기타

▶Frank O. Gehry & Associates가 새로이 인테리어를 계획한 캐나다 몬트리올 장식예술 미술관, ▶Zaha M. Hadid의 오스트리아 빈 육교 건물계획, ▶알루미늄 쉬트 단열 패널의 특성, ▶미국의 건축관련 전시회, 세미나, 설계경기 스케줄 등을 다루고 있다.

The Architectural Review

97년 6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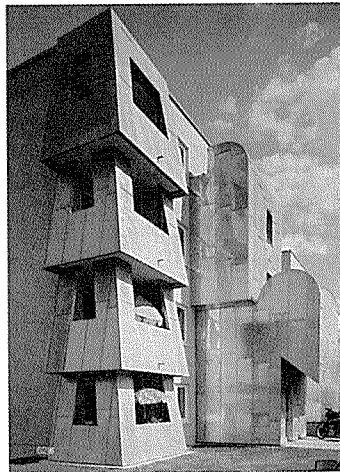
6월호는 규모나 특성 등에서 개인적인 분야로 다소 간과되어 온 주택 문제를 재고하면서 유럽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실험되어온 공업화 주택 및 공동



주거 계획안들을 살펴보았다.

■ 주택

50, 60년대의 공업화 공동주택은 대부분 실패했으며,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는 지난 20년간 전통적인 단독주택의 형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동주택 (Frank O. Gehry & Associates 작)

태로 복귀한 주택들이 건설되어 왔다. 그런데 개발도상국의 도시 인구밀집, 선진국의 핵가족화에 따른 양적인 부족현상은 주택정책에 있어 공업화된 대량 생산의 필요성을 다시 요구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공업화 주택들의 가능성이 꾸준히 탐구되어 왔으며, 밀집성, 시공비 절감, 공기단축, 유동성 등 새로운 기준이 부여된 공동주택 계획들이 출현하게 되었다. 밀집성은 지가가 높은 도심지역에 주거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도심공동화 현상을 지양하는데 도움을 준다. 시공비 절감은 제작업체보다는 건축가의 통제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공기단축 역시 정부의 장기계획 투자가 수행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0, 60년대와 오늘날의 공동주거에게 요구되는 가장 큰 차이인 유동성은 변화하는 소득수준과 생활패턴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다양한 환경의 대지에 적응하는 동시에 여러 스케일의 세대들로 구성된 공업화 공동주택의 개발을 촉진하고 있다. 과거의 계획들과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는 모범적인 공업화 공동주거의 예들로 ▶건축의 생성 과정을 재고하게 하는 Schaudt Architekten의 독일 콘스탄츠 용거할데 집합주거 ▶목재를 과감하게 사용한 Mahler Gunster Fuchs의 독일 노이엔뷔르크 주거, ▶Klaus Kada의 오스트리아 스티리아 라이프니츠 노인주거, ▶프리패브 콘크리트를 새롭게 사용한 Helin & Siitonen의 핀란드 헬싱키 루오홀라티 주거, ▶Avanti Architects의 영국 런던 킹스크로스 주거 ▶Edward Cullinan Architects의 영국 첼텐햄 학생주거, ▶RAJ Rewal Associates의 인도 뉴델리 영국대사관 주거 ▶Frank O. Gehry & Associates의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동주거 ▶MacCormac Jamieson Prichard의 미국 캠브리지 트리니티대학 학생기숙사, ▶Masaharu Takasaki Architects의 일본 동경 주거 등이 소개되어 있다.

■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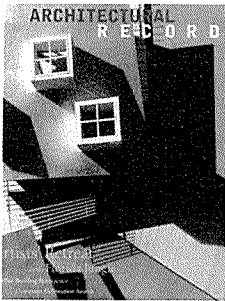
Le Corbusier의 유니떼 다비다시옹 방문기, ▶런던 RIBA의 '모빌 건축전' 소

식, ▶런던 디자인 미술관의 '에로틱 디자인의 힘' 전시회 소식, ▶사이버 카페 인테리어, ▶정치적 우유부단과 분쟁으로 인해 런던 중심가에 생성된 공업지역에 대한 비판, ▶이탈리아 가구 전시회 Milan 97에 등장한 새로운 가구 제품들, ▶인도건축가 작품집(Charles Correa), <건축과 페미니즘>, <도심 재활성화> 등의 신간서적 등이 소개되어 있다.

## Architectural Record

97년 6월호

6월호는 근래에 재활성화된 사무소 건축의 건설 붐을 중점적으로 분석하면서 그 나아가 갈 방향과 모범적인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다.



■ 사무소 건축계의 변화를 위하여  
근래 미국 대도시에는 사무소 건설이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으나, 대부분 특징 없는 단순한 박스형의 건물들이 주종을



독일 에센의 RWE AG 빌딩

이루고 있다. 제한된 자원을 갖고 개발되기 때문에 디자인에 투자되는 비용도 적으며, 환경·에너지 등 많은 부분을 거주자들의 몫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는 재생성과 환경적 측면이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예측된다.

### ■ 연속기획 - 사무소 건축편

개발업자들에 의한, 경제성만이 강조된 사무소 건축이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건축주와 사용자들은 보다 쾌적하고 특색 있는 사무공간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내 공간에 대한 지나친 위계를 파괴하면서 직원들간의 원만한 대화를 촉진시키는 오픈플랜은 생산성 향상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아울러 다양한 팀작업에 대처할 수 있는 공간적 유동성을 갖는다는 장점도 있다. 일반적인 건축비의 한도를 크게 넘지 않으면서도 이러한 조건들을 모범적으로 충족시켜주는 ▶Miller/Hull Partnership의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NW 페더럴 크레딧 유니언 건물, ▶Ingenhoven, Overdiek, Kahlen & Partner의 독일 에센 RWE AG 빌딩 ▶Cesar Pelli & Associates의 미국 오하이오주 톨레도 오웬스 코닝 본사 등이 소개되어 있다.

### ■ 근작소개

#### ▶뉴욕시 뉴암스테르담 극장

옛 사진들을 바탕으로 Hardy Holzman Pfeiffer에 의해 충실히 복원된 브로드웨이의 뉴암스테르담 극장은 아르데코 풍의 풍성한 장식들을 통해서 관객들에게 예전의 예술적 경험을 다시 향유하게 해주고 있다. 이는 미국 각 지역에서 도심의 옛 명소를 재건함으로써 도시생활을 재활성화시키고 있는 여러 사례 중 하나이다.

#### ▶노스캐롤라이나 미술관 원형극장 및 옥외 영화관

미국의 첫 주립 미술관인 노스캐롤라이나 미술관이 개최한 새 마스터플랜 설계 경기에서 당선된 건축 사무소 SmithMiller and Hawkinson, 예술가 Barbara Kruger, 조경건축가 Nicholas Quennell의 공동계획안은,

회화나 조각 등을 전시한 요새 형태의 기존 미술관에서 벗어나 개방되고 비조직적이며 자생적인 미술관을 제시하였다. 그 첫단계로 건축된 원형극장 및 옥외 영화관은 넓은 대지위에 새겨진 알파벳 글자들과 간단한 철재 구조물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술과 건축의 새로운 조화를 보여주고 있다.



### ■ 제4회 컴퓨터 설계상

컴퓨터 기술이 건축가의 설계방향을 어떻게 변모시킬지를 예측하기 위해 4년전 시작된 ARCHITECTURAL RECORD의 컴퓨터 설계상에 대한 작년 수상작들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애니메이션, 정지 영상 부문으로 나누어져 시상된 이 작품들에는 컴퓨터를 기술적인 차원 이상으로 승격시켜 새로운 설계방식을 제시했기보다는 이미 만들어진 건물들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등 건축의 상업적 판매 효과를 강화시키는 측면이 강조되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 ■ 기타

▶30대 건축가 두 명이 이끌고있는 Thompson and Rose Architects에 의해 수행된 미국 플로리다 주 아틀랜틱 미술회관 설계일지, ▶Tadao Ando가 당선된 포트 워스 현대미술관 증축안 설계경기 소식, ▶미국 오클라호마 참사 추모비 설계경기 소식, ▶미국 뉴욕에 개관된 마천루건축 박물관, ▶뉴욕 타임스퀘어 광경의 주인공인 광고 표지판들에 대한 에세이, ▶색이 첨가된 다양한 콘트리트 재료를, ▶인터넷 시대의 저작권 문제, ▶사무소 시스템 관련 신제품 소개, ▶올 여름 미국의 건축관련 세미나 및 행사 스케줄 등이 다루어져 있다.

(번역 : 최원준, 강상훈)